

◀기쁜 우리 날들▶ 칭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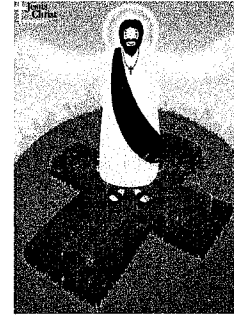
1. 칭찬은 우량주식이다. 작은 투자로 엄청난 이윤을 되돌려 받는다.
2. 칭찬은 첫날 밤의 부부다. 서로 끌어 당겨 하나 되게 만든다.
3. 칭찬은 맥가이버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
4. 칭찬은 청와대 비서실이다. 막강한 힘을 보여준다.
5. 칭찬은 포장마차의 오맹국물이다. 차가운 가슴도 훈훈하게 덥혀준다.
6. 칭찬은 다이아몬드다. 사람을 찬란하게 만든다.
7. 칭찬은 호텔 부페다.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른다.
8. 칭찬은 개그 콘서트다. 사람을 즐겁게 한다.
9. 칭찬은 박카스 드링크다. 생활 강장제요 기쁨 촉진제다.
10. 칭찬은 비아그라다. 비실거리던 사람도 힘이 솟구치게 한다.
11. 칭찬은 세뱃돈이다. 누구나 많이 받고 싶어한다.
12. 칭찬은 우등상이다. 어려서 받은 상장은 영원히 간직한다.
13. 칭찬은 잠실경기장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칭찬을 한다.
14. 칭찬은 서치라이트다. 어둠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15. 칭찬은 마술사다. 평강공주의 칭찬으로 온달장군이 탄생한다.
16. 칭찬은 맥주 3병에 안주 한접시다. 인간의 기본이다.
17. 칭찬은 보물찾기다. 가까운데 숨겨 있다.
18. 칭찬은 특 A컵 브래지이다. 가슴을 부풀게 한다.
19. 칭찬은 신부 화장이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20. 칭찬은 간장 계장이다. 한번 맛들이면 끊지 못한다.
21. 칭찬은 자동문이다.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 놓는다.
22. 칭찬은 요술안경이다. 미운 사람도 예쁘게 보인다.
23. 칭찬은 초대형 거울이다. 내가 하는대로 따라 한다.
24. 칭찬은 이승엽의 야구방망이다. 수시로 홈런을 때린다.
25. 칭찬은 부자 만드는 주문(呪文)이다. 돈도 칭찬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26. 칭찬은 부메랑이다. 나에게서 나간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27. 칭찬은 첫사랑의 연인이다. 한번 인연으로 영원히 잊지 못한다.
28. 칭찬은 지우개다. 미움을 말끔히 지워버린다.
29. 칭찬은 꽃집 아가씨다. 웃음 꽃을 피워준다.
30. 칭찬은 막판 뒤집기다. 적군도 아군이 되어 버린다.
31. 칭찬은 보장성 보험이다. 평생 기쁨이 보장된다.
32. 칭찬은 로또복권 1등 당첨이다. 허리띠고 살게 된다.
33. 칭찬은 욕쟁이 할머니다. 욕을 해도 입지가 않다.
34. 칭찬은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럽게 변한다.



◀그땐 그랬지 ▶ 해태 시가껌
 그때 우리가 씹던 껌은 지금처럼 입 냄새를 없애거나 심심 풀이가 아닌 간식이었습니다. 담배처럼 사각형 껍에 들어 있던 담배모양의 해태 시가껌은 어린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손가락 사이에 끼고 담배 피는 시늉을 한 두 번 해 본 후에 껌 종이를 벗겨 입에 넣던 시가껌, 지금도 그 시절을 떠 올리면 연기 같은 하얀 그리움이 가슴을 싸하게 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3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8월 5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1)



1.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빌4:13)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빌4:19)
3.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딤후1:7)
4.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믿음이 부족하겠는가? (롬12:3)
5. 여호와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인데, 왜 내가 약하겠는가? (시27:1, 단11:32)
6.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데 왜 내가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요일4:47.)
7.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고후2:14)
8.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지혜가 되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지혜가 부족하겠는가? (고전1:30)
9.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과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져야 하는가? (애3:21~23)
10.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는가? (벧전5:7)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은 성별하심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헌신함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

◀인품따라 행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말을 자꾸 가로채면
 돈 빼앗긴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찬양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Hymn	9 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9(시편 130)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특 별 기 도 Pray for hostage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을 위한 기도	Lemuel 신부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신4:32-40 살전5:16-18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은 사랑으로 호소하신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7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Lemuel 신부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558 총액:\$ 380,281.70

◆8월 예배위원◆

◆8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응 답 송	안 내	주 일	모임 행사
29	김반석		본당:권사		
5	노은숙		현관(1)김교섭 이광희	5	30여 헌신예배(8) 구역예배(10)
12	박일영		현관(2)정덕수 박일영	12	광복기념주일 찬양간증집회(15)
19	백제성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19	
26	양경배		윤주야 장유진	26	이삭줍기주일 남녀선교회월례회

『교 회 생 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1. 교우소식
 <이사>김경수, 조은희 집사 ☎625-2265 16A Frederick St. Hillsbroug
 <등록>권인찬, 원미경 집사(8/4선) ☎630-7708 3/335A Manukau Rd. Epsom
 조용일, 김숙현 집사(7/4선) ☎575-9780 83 Edmund St. St Heliers
2. 모임 및 회의
 (1)3여선교회. 예배 후 성가대 연습실
 (2)4여선교회. 11일(토) 낮 12:30 <장소> Rockfield Cafe
3.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분들을 위한 특별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신 Lemuel 신부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4. 8월헌신예배:3여선교회. 금주 수요예배(7:30pm) <설교> Jeeny Quince 신부
5. 정기구역예배: 금주 금요일(10일)
 *인도자, 구역장 모임:금요일(10일) 새벽기도회 후
6. 향존직 기초 신앙생활공부: "Morning Alpha 성경공부"
 *<일시> 8월 5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2:40분-3:40분
 *<장소> 성가대연습실.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7. "Morning Alpha 성경공부" <일시> 8월11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7:30am
 *<대상> 초신자, 성경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성도
 *<장소> 교회사무실(Khyber Pass Rd) <문의> 이태한 목사
8.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11월 예정)
 *진행위원들의 수고와 진행에 많은 기도와 협조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착한 시인들▶ 채송화

김윤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면
 나도 꽃을 나즈막히 피우겠습니다.
 꽃판을 달고 향기도 풍기겠습니다.
 이름을 달지 못하는 꽃도 많습니다.
 토담 위라고 불만이 있을 리 없구요
 속셈이 있어 빨강 노랑 분홍의 빛깔
 색색이 내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메마르고 시든 일상에서 돌아와 그대
 마음 환히 열린다면 그만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나지막한 내 주
 변의 땅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살
 아가는 사람들이 하룻동안 품어
 내는 빛깔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다. 거기에는 비오는 날에 적
 셔진 몸을 해 뜨는 날에 뽀송하
 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람
 부는 날에 눕혀졌다가도 청명한
 날이 오면 고개 들리라고 눈물
 을 닦는 사람들이 있다.
 어찌 앞장서야만 사람이겠는가.
 이런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 있어 들꽃 처럼 살아가는 사
 람들이 살맛 난다.
 흐드러지게 핀 잠풀의 꽃들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날이다.